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5. 12 (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李 "상위등급만 돈 빌려준다"...하위 50% 저리대출 시동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N324to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본권 도입을 위한 연구단을 오는 6월 11일 공식 출범할 예정
현재 연구단이 그리는 '기초대출'은 모든 국민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개념

5대 은행 1분기 가계대출, 목표치 크게 밑돌아
경향신문 https://zrr.kr/Pgu0Xj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기조 속에 5대 은행의 1분기 대출이 올해 목표치를 밑돈 모습
이는 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가 4월 확정되기 전까지 보수적으로 대출을 집행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

우리은행, 전세대출 금리 0.15%p 인하…최저 연 3.71%
연합뉴스 https://zrr.kr/VPo8bB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0.15%p 인하하며 전세자금대출 신잔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연 3.86~4.56%에서 연 3.71~4.41%로 하락
이는 전세자금대출 고객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대출 금리 인하

'기업금융 베테랑' 돌아오라… 올해도 퇴직 행원 채용 활발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YF4Sb6

인공지능 전환(AX)으로 인건비 절감을 꾀하는 은행권에서 연간 2000여명이 넘는 희망퇴직이 이뤄지는 가운데 절반 수준을 퇴직자 재고용으로 기업금융 영업에 내세우고 있는 모습
은행 입장에서 퇴직자 재채용은 생산적 금융 확대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

인버스 ETF 회전율 70% 육박...금감원 "상승장 리스크 점검"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NbNjAx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시 급등과 관련해 신용융자 관련 자금 흐름과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발행어음·IMA 발행규모 확대 관련 종투사의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언급

상폐 요건 강화하자…동전주들 병합 러시
서울경제 https://zrr.kr/ZOhrmT

올해 7월 동전주 상장폐지 시행을 앞두고 국내 증시에서 상장사들의 주식 병합·분할 관련 거래정지가 잇따르고 있는 모습
다만 시장에서는 병합으로 주가를 끌어올려도 기업가치와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시총 미달이나 자본잠식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존재

금융위, 실손보험 자동청구 연계율 90% 이상으로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PgnvDN

금융위원회가 실손24(실손청구전산화 시스템)과 의료기관 연계율을 올해 하반기에 90% 이상까지 높이기로 계획
금융위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도 강화하고 실손24 참여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

한의업계 반발에 '8주물' 상반기 도입 불투명…車보험 적자 지속
연합뉴스 https://zrr.kr/Lpphi5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8주물' 도입이 상반기에도 불투명
손해보험업계는 제도 시행이 미뤄지면서 자동차보험 적자 구조가 심화하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반쪽자리 STO 제도화, 퇴출로 내몰리는 스타트업
이데일리 https://zrr.kr/EfhdY7

지난 1월 STO(토큰증권발행)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제도화로 규제만 먼저 강화되면서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모습
시장의 핵심 구조로 활용돼 온 비금전신탁수익증권 관련 내용이 빠진 채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자산유동화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

코인 과세 유예, 7월 세법개정서 빠진다...내년부터 예정대로 과세
아시아경제 https://zrr.kr/qsgpcb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담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
이에 세제 당국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예정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